



## 새로 나온 책

▶ 산책자의 마음(정고요 지음)=대도시를 떠나 강릉의 바다와 숲을 걸으며 삶의 속도를 다시 배워간 한 산책자의 회복 일기다. 시인은 산책길에서 길어 올린 단상들을 산문과 시, 짧은 소설로 엮어낸다. 강릉의 해변과 밤바다, 조약돌과 모래알, 식물과 고양이, 피아노 같은 사소한 풍경들이 사유의 대상이 돼 조곤조곤 펼쳐진다. 책은 독자에게도 걷고 생각하는 기쁨을 조용히 건넨다. 엘리. 1만6800원.

▶ 너는 아직 어린이 돼 보지 않았지만(박희선 지음)=두 팔과 한 아들의 엄마이자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곁을 지켜온 시인이 펴낸 시집이다. '엄마가 자녀에게 건네는 편지'를 주제로, 자라나는 이와 바라보는 이의 사이를 다정한 언어로 담아냈다. 일상의 순간 속에서 적어낸 시편들은 아직 어른이 돼 보지 않은 청소년과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자라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 쉬는시간. 1만2000원.

▶ 장수풍뎡이 호텔(마누 몬토야 지음·그림, 김윤정 옮김)=AOI 일러스트레이션 수상작. 정해진 규칙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장수풍뎡이 호텔'을 배경으로, 꿀을 먹고 싶은 꿀벌과 노래하고 싶은 매미 등 규칙이 불편한 곤충들과 장수풍뎡이 씨의 갈등을 그린 그림책이다. 이야기는 고집을 내려놓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 그리고 때로는 규칙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머스트비. 1만6800원.

▶ 제주의 아침, 한 줄 오프닝(고은정 지음)=202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제주지역 지상파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구성 작가로 활동한 저자가 그동안 써 내려간 오프닝 멘트 가운데 80여 편을 선별해 에세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책은 사계절로 구성돼, 친구와 기억, 발전과 비타민, 행복 등 일상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순간들을 포착해 짧지만 여운 깊은 문장으로 담아냈다. 동네문학. 1만1000원.

▶ 환경실용주의(김일방 지음)=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인 저자가 국내에 비교적 생소한 '환경실용주의' 개념을 소개한 저서다. 그간 학술 논문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논의돼 온 환경실용주의를 단행본으로 체계화한 첫 시도에 가깝다. 책은 개념의 형성과 이론적 성격을 평이한 언어로 풀어내며, 환경 위기와 정책 현실 속에서 이 사상이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짚는다. 보고서. 1만7000원. 김채현기자

## 이 책!

아예잡지

## 『주인 노예 남편 아내』



## 자유를 선택한 부부의 가장 치열한 탈출극

1848년 12월,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담한 탈출극이 시작됐다. 흑인 노예 신분이었던 엘런과 윌리엄 크래프트 부부가 자유를 찾아 북부 필라델피아로 향하는 목숨을 건 여정에 오른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우일연(Yiyun Li)이 펴낸 두 번째 책 '주인 노예 남편 아내(Master Slave Husband Wife)'는 이 믿기 힘든 실화를 바탕으로 억압에 맞서 자유를 선택한 인간의 보편적 투쟁과 사랑의 기록을 생생하게 전한다. 이 작품은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 타임지 '필독서'로 선정되며 문학적 가치를 인정 받았다. 2024년에는 우일연 작가가 이 책으로 한국계 작가 최초로 풀리처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책은 부부가 북부로 향한 나흘간의 여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들의 탈출 계획은 기발하면서도 위험천만했다. 피부색이 밝았던 아내 엘런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녹색 안경을 쓴 채 병약한 백인 남성 '주인'으로 변장했다. 글을 쓸 줄 몰랐던 엘런은 서명을 피하기 위해 팔에 봉대를 감았다. 남편 윌리엄은 그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노예로 위장했다. 그렇게 부부는 아들을 틈탄 도주가 아닌, 오히려 가장 '백인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앞에 나서는 길을 택했다. 부부는 기차와 증기선, 최고급 화물 방장으로 억압에 맞서 자유를 얻기 위해 당당히 북부로 향한다. 그러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찔한 순간들은 계속된다. 기차 출발을 앞두고 소유주가 역에 나타나는 위기,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정체를 의심하는 시선들, 악명 높은 노예 상인과의 예기치 못한 조우까지 여정 내내 긴장은 끊이지 않는다. 책은 이 나흘을 한 편의 스릴러처럼 밀도 있게 따라간다. 그동안 미국 문학계에서 노예제와 남북전쟁은 백인 주류 역사학자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우 작가는 이 경계를 넘어 크래프트 부부의 탈출 실화에 주목하며 피부색과 인종, 계급이라는 미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제3자의 시선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절제되면서도 열정적인 문체로 재조명했다. 노예제는 사라졌지만, 이데올로기와 혐오로 분열된 오늘의 세계는 여전히 이 서사를 현재형으로 만든다. 억압을 벗어나 자유를 선택한 인간의 이야기로서, 그리고 사랑과 연대가 만들어낸 기적의 기록으로서 '주인 노예 남편 아내'는 지금 다시 읽힐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엄격한 역사적 고증과 소설적 긴장감을 결합해 부부의 이야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우 작가는 "이 이야기는 미국 이상의 무언가를 다룬다"면서 "한국인들에게도 공감할 끌어낼 만한 보편적 주제인 '불의에 대항한 투쟁'이다"라고 말했다. DROM(드롬). 2만2000원.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기쁨이여,  
아침처럼 밝은 기쁨이여,  
이제, 이제, 나에게 쏟아져라.

희망이여,  
내게 밝아오는 희망이여,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 본문 중 -



## 산골에서 길어 올린 희망의 문장

서정홍 '희망은 끝내 사라지지 않고'

1992년 '아들에게'로 전태일문학상을 받은 산골농부 시인 서정홍이 15년 만에 산문집 '희망은 끝내 사라지지 않고'를 펴냈다. 시인은 기후위기와 재난, 농촌공동체 해체라는 절망의 현실 앞에서 자연과 삶 속에서 길어 올린 희망의 문장들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자연 속에서 살아온 농부의 일상과 깨달음을 담은 '오늘처럼 살맛 나는 날은 처음이요', 산골 마을에 정착한 저자에게 마음과 품을 내어준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 농업과 사회를 둘러싼 현실에 대한 성찰을 담은 '세상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 그리고 청년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마지막 유인'이 차례로 이어진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산골 마을의 맑은 공기와 사계절의 눈부신 변화가 자



연스레 눈 앞에 펼쳐진다. 다정한 이웃들과 나눈 소소한 일화는 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신다. 동시에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농업의 현실과, 고령화와 청년 이탈로 점점 비어가는 농촌 마을의 풍경은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그럼에도 오늘도 다시 펜을 들고 산발로 나가 땅을 일구는 저자의 모습처럼, 이 책은 독자에게도 다시 한 번 삶을 일구어 갈 용기와 희망을 건넨다. 시인은 "사람 옆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희망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땅 곳곳에서 맑은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공동체넷. 1만8000원. 김채현기자

## 제주 미제 사건을 통해 본 '괴물의 기원'

조종연의 '남방여왕-괴물의 탄생'

2008년 계간 '제주작가'에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작가가 소설책 '남방여왕-괴물의 탄생 1·2'를 펴냈다. 작가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을 소설의 모티브로 삼았다. 작품은 사건의 진상을 좇는 서사를 중심에 두되, 단순히 '범인이 누구인가'를 찾는 데 머물지 않는다.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고 겹겹이 쌓인 사실과 맥락을 헤쳐 나가며, 괴물의 기원이 개인이 아닌 사회·역사적으로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형성됐음을 드러낸다.

작가는 두 권의 장편소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와 그로 인해 형성된 정치 권력, 나아가 일그러진 현대사가 어떻게 '괴물'을 탄생시켰는지를 집요하게 묻는다. 소설 속 괴물의 기원은 베트남 전쟁으로 설정되며, 특히 그 전쟁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 결정적



계기로 제시된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탐욕과 비정함, 출세를 향한 욕망은 제주도라는 지역 공동체의 권력 구조 속으로 스며든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제주도의 정치와 문화, 역사와 현재를 촘촘히 펼쳐 보인다. 익숙한 지명과 제주어, 현실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 도민 독자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다만 2권 표사에서 김도균 소설가가 지적했듯, 제주 사회에서 금기시돼 온 민감한 소재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호불호가 갈릴 만큼 '도발적'이라는 평가도 따른다. 김동윤 제주대 교수 역시 "제주 사회에서 적잖은 시뭛거리가 될 작품"이라고 평했다. 삼창. 1만9000원. 김채현기자



# 삼춘, 크루즈 타뵐?

## 잘도 팬안협주

상해사 가뵐실테쥬만은 푸웨이가 최급쥬!

예약문의 010-9798-7387  
크루즈제주닷컴 <https://cruisejeju.com>

지루할 틈이 없는  
**초호화 크루즈 3박** + **경험해 보지 못한 상해 초특급 호텔 1박**



끝없는 미식의 향연



노래방, 맥주 페스티벌, 카데일 파티, 한국인 전용 요가/댄스



오션뷰 발코니 객실



최고급 소고기 무제한



예원 옛거리, 와이탄



격이 다른 회귀, 미식

출발일(4박 5일/항공편 귀국)

2026.02.05 제주-부산-해상-상해 1박

2026.03.10/14 제주-여수-해상-상해 1박

1인 198만원 (귀국 항공료 포함/20인 이상 출발/제주도민 한정)

포함사항 [기] 제주시→강정항 셔틀버스 운행, 여행자보험, 인솔자 동행 [크루즈 3박] 오션뷰 발코니 VIP 객실(2인 1실), 전 일정 식사 및 부대시설 이용, 한국 기항지 관광(버스, 가이드) [상해1박] 특급 호텔(2인 1실), 상해 기항지 관광(버스, 가이드)  
불포함 사항 선상 서비스차지 약 9만원, 기타 개인 비용